

'기생충' 황금종려상, 100년 한국영화사 최대영예

봉준호 감독,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서 '최고상' 수상 2010년 이창동 감독 '시' 각본상 이후 9년만에 쾌거 초반 약세 딛고 프리미어 시사회 이후 국내외서 호평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거머쥐었다. 동시에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가 각본상을 받은 이래 칸 영화제 무대에 오른 한국 영화계에 9년 만의 상을 안겼다.

25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칸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기생충'은 맨 마지막에 불리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 영화로서는 최초로 봉 감독의 칸 입성 5번째, 경쟁부문 진출 2번째 만의 쾌거다. 앞서 봉 감독은 '괴물'(2006, 감독주연) '도쿄'(2008, 주목할 만한 시선) '마더'(2009, 주목할 만한 시선) '옥자'(2017, 경쟁)로 칸의 주목을 받았다.

심사위원장인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나리투(66) 감독은 황금종려상 수상작으로 봉준호의 '기생충'을 명명했다. 봉 감독은 프랑스 배우 카트린 드뇌브(76)로부터 황금종려상 트로피를 건네받은 뒤 '베르시'라고 프랑스어로 인사했다.

이후 봉 감독은 "불어 소감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프랑스 영화를 보며 영감을 받고 있다. 수상 멘트를 준비하지 못했다. '기생충'이란 영화는 큰 영화적 모험이었다. 독특하고 새로운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영어로 말하며 눈시

울을 붉혔다.

이어 스테프들과 가족, 영화 관계자들에게 영광을 돌린 다음 주연배우 송강호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송강호는 "인내심과 슬기로움과 열정을 가르쳐 주신, 존경하는 대한민국 모든 배우들에게 영광을 바치겠다"며 봉 감독에게 마이크를 돌려줬다. 봉 감독은 "나는 그냥 열두살의 나이에 영화감독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소심하고 어리숙한 영화광이었다. 이 트로피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게 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감사하다"는 말로 수상소감을 마쳤다.

봉 감독의 황금종려상 수상 여부는 불투명했다.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된 작품은 총 21편인데, 이 중 아시아 감독이 연출한 작품은 2편에 불과하다. 프랑스·스페인·벨기에 등 유럽 출신 감독이 만든 영화가 11편에 이르고, 아시아 감독이 연출한 작품은 '기생충'과 중국의 디아오 이안(50) 감독의 '너와 월드 구스 레이크 뿐이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거장들이 경쟁 부문에 초청돼 각축을 벌였다. 과거 황금종려상 수상 감독들의 작품이 5편으로 전체의 약 25%를 차지했다. '소리 위 미스트 유'의 칸 로치(88), '영 아메드'의 장 피에르 다르덴(67)·뤽 다르덴(65) 형제, '어 히든 라이프'의 테렌스 펠릭

(76), 베르투, 마이 러브: 인터메조'의 압둘라프 케시시(59), '월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의 쿠엔틴 타란티노(56) 감독 등이 이미 황금종려상을 받은 감독들이다.

'기생충'의 초반 약세는 프리미어 시사회 후 역전됐다. 131분간의 상영이 끝나고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자 객석은 뜨거운 함성과 함께 약 8분간의 기립박수를 보냈다. 르몽드 등 세계 150여 언론 매체에서 봉 감독에게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다.

국내의 언론과 평단은 물론 영화계 관계자들 모두 호평을 쏟아냈다. 평론가들의 평점을 집계하는 스크린데일리에서는 3.5점의 점수로 시상식 전 1등으로 마감했다. 또한 미국의 평점 집계 사이트인 아이온시네마도 '기생충'에 가장 높은 점수인 4.1을 매겼다.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은 알레한드로 곤살레스 이나리투(66)다. 심사위원 8인은 4대륙 출신 8명으로 남녀 동수로 구성됐다. 심사위원은 배우 엘 패닝(21), 배우 겸 감독 마우모나 누다예, 켈리 레이차트(55) 감독, 엘리스 로르와츠(38) 감독, 엔키 비라르 감독, 로맹 캄피요(57) 감독, 지오르조스 란디모스(46) 감독, 파베우 파블리코프스키(62) 감독 등이

'기생충'은 식구들 모두가 백수



인 기택(송강호)에 장남 기우(최우식)가 고액 과외선생 면접을 위해 박 사장(이선균)의 집에 발을 들이게 되고, 두 가족의 만남은 걸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번져간다는 내용이다. 송강호(50)·이선균(44)·조여정(38)·최우식(29)·박소담(28) 등이 출연했다.

한편 이례적으로 발표된 특별황금종려상은 쿠엔틴 타란티노(56) 감독의 '월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가 차지했다. 심사위원대상은 마티 더옴(37) 감독의 '아틀란티크'가 받았다. 심사위원상은 라지 리 감독의 '베 미제라블', 클레버 멘돈사 필로(51)·쥘리아노 도르발리스

감독의 '바쿠리우'가 수상했다. 장 피에르 다르덴(67)·뤽 다르덴(65) 형제 감독은 '영 아메드'로 감독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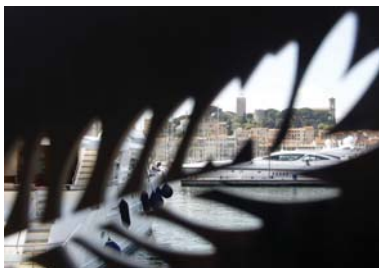
최우수배우상은 남자 '제인 & 글로리'의 안토니오 반데라스(59), 여자 '리틀 조'의 에밀리 비샬(36)이 차지했다. 각본상은 셀린 삼파(41) 감독의 '포르테이트 오브 어 레이디온 파이어', 심사위원특별언급상은 엘리야 슐라이만(59) 감독의 '잇 머스트 비 헤븐'이 됐다. 황금촬영상은 세자르 디아즈 감독의 '이벨 마더스'에게 돌아갔다.

봉 감독은 경북 대구 출신으로 2000년 영화 '플란다스의 개'로 데

뷔했다. 데뷔작은 평단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누적관객수 447명에 그쳤다. 봉 감독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개봉한 '살인의 추억'부터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50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평단의 호평과 더불어 흥행에도 성공했다. 2008년에는 '괴물'로 1000만 영화를 만들어냈다. 이후 '마더', '살국열차', '옥자', '기생충'까지 총 7편의 장편영화를 제작했다.

올해로 100년을 맞이한 한국 영화는 '기생충'의 황금종려상 수상으로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을 쏘았다. 뉴시스

봉준호 '기생충' 수상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이란?



'기생충' (감독 봉준호)이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뒤 해당 상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금종려상'은 칸 영화제의 본선 경쟁 부문 초청작 중 최고 작

품에 수여한다. 즉, 칸 영화제의 '대상'이다. 세계 3대 영화제는 대상을 각기 다른 이름으로 수여한다. 베니스 영화제는 '황금사자상', 베를린 영화제는 '황금곰상'이 대상에 해당한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는 대회 20여편 내외가 초청된다. 수상작(자)은 영화제 마지막날인 폐막식에서 가려진다. 대상인 황금종려상과 함께 그랑프리(2등상·심사위원대상), 심사위원상(3등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각본상, 감독상 등이 수여된다.

칸 영화제의 대상이 '황금종려상'이라는 명칭으로 확정된 것은 1975년부터다. 초창기인 1939년부터 1954년까지는 최고상의 이름이 '국제영화제 그랑프리(Grand Prix

칸 영화제 본선 '경쟁부문' 초청작 중 최고 작품에 수여
베니스영화제-황금사자상·베니스영화제-황금곰상 해당

du Festival International du Film)였다. 이후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황금종려상'(Palme d'Or)을 유지하다가 1964년부터 명칭이 바뀌었

다. 그 해부터 1974년까지는 '영화제 그랑프리'(Grand Prix du Festival)라는 이름으로 대상이 수여됐다.

상은 해당 작품에 돌아가므로 감독에게 주는 상이지만, 이례적으로 배우가 함께 이 상을 수여한 적도 있었다. 2013년 제66회 영화제에서는 '가장 따뜻한 색, 블루'의 압둘라

티프 케시시(59) 감독과 주연배우 레이 세두(34), 아넬 에그자르코폴로스(26) 2명이 황금종려상을 공동 수상했다.

당시의 심사위원장 스티븐 스피버그(73)가 작품을 극찬하며 배우들의 공로도 함께 치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에는 다른 주요상을 수여할 수 없도록 한 규칙으로 인해 배우들의 수상이 불발위기에 처하자 황금종려상을 배우에게도 수여한 것이다.

2회 이상 수상자는 총 8명이다. 알프 세베리(1903~1980),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80), 에밀 쿠스투리차(65), 이마 무라 쇼헤이(1926~2006), 장 피에르 다르덴(67)·뤽 다르덴(65) 형제, 미하엘 하네케(77), 켄 로치(88), 빌레 아우구스트(71) 등이다.

봉 감독은 '기생충'으로 대한민

국 최초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아시아 감독으로는 두 번째인데, 지난해 '어느 가족'으로 이 상을 수상한 고레에다 히로카즈(57)가 최초의 아시아인 수상자다. 최초의 여성 수상자는 1993년 영화 '피아노'의 제인 캠피언(65)이었다. 앞서 언급한 두 여배우를 제외하면 이후 여성 감독에 대한 수상은 없다.

한편 칸 영화제는 경쟁부문 이외에 다양한 부문을 운영하고 있다. 공식 색션은 경쟁 부문을 포함해 '주목할 만한 시선', '비경쟁 부문', '시네마운데이션', '단편영화' 등으로 구성된다. 비공식 색션으로는 '감독주간', '국제비평가주간'이 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